

알츠하이머병의 10가지 징후

- 1) 집 혹은 직장에서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억력의 감퇴입니다. 직장동료의 이름, 전화번호, 혹은 과제의 마감날짜를 잊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난다거나, 자신이 알고 있던 동료의 이름을 전혀 기억해내지 못하거나, 혹은 자신이 하고 있던 과제가 무엇이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면 알츠하이머병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2) 자신에게 아주 익숙한 일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입니다. 바쁘게 생활하는 사람은 때때로 정신이 없는 탓에 음식을 전자레인지에서 익혀놓고도 꺼내지 않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음식을 만들어 놓고도 잊어버리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음식을 만들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 3) 언어구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의사소통에 있어 누구나 적당한 표현을 찾는데 곤란함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이는 평소 알고 있던 단어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문장 중에 엉뚱한 단어를 끼워 넣는 등 자신의 표현을 다른 이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 4) 시간 및 장소에 대한 개념 상실입니다. 일시적으로 날짜, 요일, 장보기목록 등을 잊어버리는 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사람은 자신이 항상 다니던 길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거나,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는지 몰라서 길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 5) 판단력의 저하 또한 알츠하이머병의 증상 중 하나입니다. 추운 날씨에 코트나 스웨터를 챙기지 않고 외출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실수입니다. 그런데, 가게에 가는데 잠옷을 입고 나간단든지, 더운 여름날 블라우스를 겹겹이 껴입는다면 알츠하이머를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 6) 추리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수표책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생각해 내는 데 어려움을 갖거나 숫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또한 기본적인 계산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알츠하이머를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 7) 물건을 잘못 놓는 경우입니다. 누구나 때때로 열쇠 혹은 지갑을 제자리에 갖다 놓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사람의 경우는 다리미를 냉장고에 놓는다든가, 팔목 시계를 설탕용기에 놓는 등 물건을 엉뚱한 곳에 놓아 두곤 합니다.
- 8) 기분 혹은 행동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양한 감정변화를 경험합니다. 알츠하이머병을 갖고 있는 이들은 아무런 이유없이 정상인 보다 좀더 갑작스런 감정변화를 보이곤 합니다.
- 9) 성격의 변화입니다. 사람의 성격은 나이에 따라 조금씩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츠하이머병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갑작스런 성격의 변화를 보이는데, 그 예로 평소에는 친절하고 외향적이던 사람이 신경질적이 되거나, 매사에 의심을 하거나, 혹은 무섭게 변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 10) 진취성 혹은 솔선성의 감소를 들 수 있습니다. 평소에 가사일, 직장일, 혹은 사회적인 책무들 때문에 지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자신의 일을 수행하곤 합니다. 알츠하이머병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수행하던 일상적인 일들에 더 이상 관심이 없거나, 관여되기를 꺼려합니다.

ALZHEIMER'S ASSOCIATION (알츠하이머협회)

919 North Michigan Avenue, Suite 1100

Chicago, Illinois 60611-1676

전화: (800) 272-3900 (한국어 무료 통역서비스 가능)

팩스: (312) 335-1110

웹사이트: <http://www.alz.org>